

최부 <탐라시>의 번역 양상 고찰

윤치부*

<목 차>

1. 머리말
2. 서지적 개관
3. 번역 양상
4. 맺음말

1. 머리말

최부의 <탐라시>는 이미 <금남표해록>으로 학계에 널리 알려진¹⁾ 최

* 제주대

1) ① <금남표해록>의 대표적인 번역서와 주해서는 다음과 같다.

최부, 김찬순 역, 『기행문집(1)』(조선고전문학선집29),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4, 297~523면. ; 최부, 李載浩 역, 『표해록』(『국역 연행록 선집』), 민족문화추진회, 1976, 21~236면.) ; 최부, 최기홍 역, 『漂海錄』, 삼화인쇄주식회사, 1979, 1~327면. ; 최부, 최기홍 역, 『금남선생 표해록』, 교양사, 1989, 1~287면. ; 최부, 최기홍 역, 『최부 표해록』, 교양사, 1997, 1~271면. ; 최부, 윤치부 주해, 『주해 표해록』, 박이정, 1998, 1~248면. ; 최부, 허문섭 역, 『표해기』, 해누리, 1994, 181~378면. ; 최부, 서인범·주성지 역주, 『표해록』, 한길사, 2004, 1~656면. ; 崔溥, 박원호 역, 『崔溥 漂海錄 譯註』, 고려대출판부, 2006, 1~515면. ; 최부, 김지홍 역, 『최부 표해록』, 지만지, 2009, 1~483면. ; 崔溥, 播磨清絢 譯, 『唐土行程記』一~四, 皇都書林, 1769, 1~67면, 1~51면, 1~74면. ; 崔溥, 播磨清絢 譯, 『通俗漂海錄』一~四, 東都書林·浪華書林·皇都書林, 1795, 1~50면, 1~66면, 1~65면, 1~73면. ; 崔溥, 葛振家 譯, 『漂海錄 : 中國紀行』,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2, 1~192면. ; John

부가 1487년(성종 18) 11월 제주추쇄경차관으로 제주에 왔다가 이듬해 윤정월 제주를 출발하여 중국에 표류하기 전 50여 일 남짓 제주에 머물면서 제주의 풍토와 물산 등을 노래하고 있는 칠언절구의 기속시이다. 따라서 이 <탐라시> 35절은 『금남표해록』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일 뿐만 아니라 최부의 문집 『금남집』에 한 편도 수록되어 있지 않는 그의 한시를 이해하는 데도 더없이 귀중한 자료이다.²⁾ 더욱이 스승인 점필재 김종직의 <탁라가>와의 연관성 및 후세에 창작된 탐라시 계통에 끼친 영향뿐만 아니라 당대 제주의 역사와 사회상을 파악하는 데도 소중한 작품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최부의 <탐라시> 전문에 대한 번역 작업은 모두 11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1976년 김행옥과 박용후를 시작으로³⁾ 1991년과

Meskil, Ch'oe Pu's Diary :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Tucson,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65, 1~177면.

② <금남표해록>의 대표적인 연구논저는 다음과 같다.

- 崔康賢, 『韓國紀行文學研究』, 一志社, 1982, 55~70면. ; 소재영·김태준 편, 『여행과 체험의 문학』,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7, 331~341면. ; 尹致富, 『韓國海洋文學研究』, 學文社, 1994, 64~74면. ; 조규익·최영호 엮음,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103~140면. ; 葛振家, 『崔溥 漂海錄 研究』,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5, 1~246면. ; 박원호, 『崔溥 漂海錄 研究』, 고려대출판부, 2006, 1~370면. ; 高柄翊, 「成宗朝 崔溥의 漂流와 漂海錄」,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대출판부, 1970, 112~133면. ; 崔康賢, 「한국 해양문학 연구」, 『省谷論叢』12, 省谷學術文化財團, 1981, 235~265면. ; 崔來沃, 「漂海錄 研究」, 『比較民俗學』10, 비교민속학회, 1993, 221~255면. ; 崔柱賢, 「崔溥의 錦南漂海錄 研究」, 漢陽大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1994, 1~63면. ; 서인범, 「조선 관인의 눈에 비친 中國의 江南 : 최부 표해록을 중심으로」, 『東國史學』(曹永祿教授定年紀念論叢), 동국대 사학회, 2002, 685~708면. ; 주성지, 「漂海錄을 통한 韓中航路 分析」, 『東國史學』(曹永祿教授定年紀念論叢), 동국대 사학회, 2002, 229~256면. ; 서인범, 「崔溥 漂海錄 연구 : 최부가 묘사한 中國의 江北과 遼東」, 『國史館論叢』102, 국사편찬위원회, 2003, 1~19면. ; 박명숙, 「최부 표해록에 나타난 이념과 의미 및 감남 이미지」, 『온지논총』27, 온지학회, 2011, 101~133면.
- 2) 1676년 전라도관찰사 李喜年이 협조하여 外6代孫 羅斗春이 함편하여 羅州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重刊本人 규장각본 『錦南集』에는 최부의 한시가 한 편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16(影印), 景仁文化社, 1990, 359~505면.)
- 3) 金行玉 譯, 「태호의 탐라지」,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202~

1992년에 각각 김상조와 김희동이 <탐라시> 번역 작업에 동참하였다.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오문복·김익수·홍기표·오창명 등이 차례로 이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최부의 <탐라시> 번역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⁵⁾ 그러나 이들 번역은 <탐라시> 한 편만을 온전히 번역한 것이 아니라 <탐라시>가 수록된 문헌 전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번역에는 차이뿐만 아니라 오역도 조금씩 드러난다. 왜냐하면 이본에 따라 오자가 있는 것을 대부분 간과하여 정본을 탐색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원진의 『탐라지』에 수록된 최부의 <탐라시> 번역은 김행욱·김상조·오문복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원조의 『탐라지초본』과 『증보탐라지』에 수록된 <탐라시>는 오문복이, 김상헌의 『남사록』에 수록된 최부의 <탐라시>에 대해서는 박용후·김희동·홍기표 등이 함께 하였다. 또한 이종의 『남사일록』에 수록된 최부의 <탐라시>는 김익수가, 이형상의 『남환박물』에 수록된 최부의 <탐라시>는 오창명이, 기타 『탐라시선』에서는 오문복이 번역하였다.⁶⁾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들의 번역 양상을 중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본 간, 번역자 간 번역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결과 오역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밝힘으로써 최부의 <탐라시>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도모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최부의 <탐라시>를 제대로 고찰하는 데 기

331면. ; 朴用厚 譯, 「청음의 남사록」,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17~191면.

- 4) 李元鎮, 『耽羅志』, 金相助 譯,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91, 96~102면. ; 金尙憲, 『南槎錄』, 金禧東 譯, 永嘉文化社, 1992, 72~81면.
- 5) 李增, 『南槎日錄』, 金益洙 譯, 濟州文化院, 2001, 207~213면. ; 淡水契, 『譯註增補耽羅誌』, 吳文福 外 譯, 濟州文化院, 2005, 527~536면. ; 吳文福 編譯, 『耽羅詩選』, 이화문화출판사, 2006, 360~394면. ; 이종범, 『사람열전1 :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2006, 42~52면. ; 李源祚, 오문복 외 역, 『耽羅誌草本(上)』, 濟州教育博物館, 2007, 203~210면. ; 金尙憲, 『南槎錄(上)』, 洪琦杓 譯註, 濟州文化院, 2008, 111~130면. ; 이형상, 이상규·오창명 역주,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226~235면.
- 6) 『사람열전』에서는 이종범이, 「금남 최부의 <탐라시 35절> 고찰」에서는 임준성이 번역에 동참하고 있으나 이종범은 <탐라시> 35절 가운데 4수만을, 임준성은 7수만을 번역하였다.(이종범, 위의 책, 42~45면. ; 林俊成, 「錦南崔溥의 <耽羅詩 三十五絶> 考察」, 한중문화교류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문, 2010.)

여하였으면 좋겠다.

2. 서지적 개관

최부의 <탐라시>를 수록한 문헌은 크게 탐라지류, 남사록류, 남사일록류, 남환박물류, 기타류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탐라지류에는 이원진의 『탐라지』,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일본동경대학본 『탐라지』, 담수계 편 의 『증보탐라지』 등 4종이다. 남사록류에는 규장각본 『남사록』과 청음유 집본 『남사록』이 있으며, 남사일록류에는 이증의 『남사일록』이 있다. 남 환박물류에는 이형상의 『남환박물』이, 기타류에는 오문복의 『탐라시선』 이 있다. 이 장에서는 최부의 <탐라시>를 번역하고 있는 문헌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서지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2.1. 김행옥 번역 이원진의 『탐라지』

김행옥이 번역한 이원진의 『탐라지』는 1976년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간행한 『탐라문헌집』에 수록되었다.⁷⁾ 이 책에는 차례로 <영주지>·<충암 의 제주풍토록>·<청음의 남사록>·<규창의 제주풍토기>·<태호의 탐라 지>·<심재의 탐라기년> 등 모두 6편의 제주 관련 문헌을 번역하여 수록 하였다. 번역은 김봉옥·홍정표·박용후·김태능·김행옥·김계연 등이 차례로 담당하였다. 이 책은 첫 면에 문헌 제목과 저자와 역자를 밝히고 그 다음 한 면 정도에 간단한 해제를 적은 다음 이어서 번역문을 게재하였는 데, 번역문의 각 면 하단에는 일곱 줄에서 열두 줄 정도의 활자화한 한 자 원문을 띄어쓰기하여 수록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한글 번역 문의 경우 ‘추조타(鱗潮麗)·자단(紫檀)·후풍도(候風島)·김방경(金方慶)·단조 (丹詔)’처럼 한자어나 고유명사 등에는 ()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그러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풀이하는 별도의 각주 처리는 없다. 원문은 강

7) 제주도교육위원회, 『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202~331면.

두환과 김영돈이 소장본을 대조하여 수록하였다. 이원진의 『탐라지』는 <태호의 탐라지>라는 제목으로 『탐라문헌집』 202면에서부터 331면에 걸쳐 실었는데, 최부의 <탐라시>는 이 책 293면부터 296면에 수록하였다. 오자와 탈자가 여러 곳에서 눈에 띈다.

2.2. 김상조 번역 이원진의 『탐라지』

김상조가 번역한 이원진의 『탐라지』는 1991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소의 탐라문화총서(9)로 간행하였다.⁸⁾ 이 책은 첫머리에 이원진의 탐라지 해제를 수록하고, 이어서 김상조의 번역문을 141면까지 수록하였다. 바로 뒤에 고도서본 한문 원문을 영인하여 수록함으로써 번역문과 한문 원문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최부의 <탐라시> 번역문은 96면부터 102면에 걸쳐 수록하였는데, 질 사이에는 한 줄 띄어 적었다. ‘최부(崔溥)·동각(東角)·정기(旌旗)·정사(精舍)·유완약(劉阮藥)·해상(海桑)’처럼 일부의 한자어와 고유명사에 한해서만 ()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한자어에 대한 별도의 각주 처리는 없다. <탐라시>의 영인본 한문 원문은 117면부터 120면에 걸쳐 수록하였다.

2.3. 오문복 등 번역 이원진의 『역주 탐라지』

이원진의 『탐라지』를 번역한 『역주 탐라지』는 2002년 김찬흡·고창석·김혜우·김상옥·조성운·강창룡·오창명·오수정 등에 의해서 간행되었다.⁹⁾ 최부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는 제주목의 제영편은 김찬흡이 번역하였으나 한시 대부분은 오문복이 역주를 맡았다. 이 책은 크게 ‘서문·차례·일러두기·번역문·참고문헌·찾아보기·영인 원문’ 순으로 구성되었는데, 영인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본을 이용하였다. 최부의 <탐라시> 번역문은 ‘최부의 35절’이라는 제목 하에 196면부터 205면에 수록하였고, 영인본 한문 원문은 112면부터 115면까지 수록하였다. 한글 번역문의 경우 왼쪽에 한

8) 李元鎭, 金相助 譯, 『耽羅志』,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91, 1~308면.

9) 이원진, 김찬흡 외 역,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1~470면.

문 원문을 활자화하고 그 오른쪽에 번역문을 수록하는 모습이다. 2절 1구의 ‘육곶(六串:六鰲)’에서만 유일하게 ()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으며, 각 면 하단에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상세한 각주 처리를 하였다.

2.4. 오문복 번역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번역은 2007년 제주교육박물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¹⁰⁾ 이 책은 김찬흡·오문복·김혜우·김상옥·강창룡·오창명·오수정 등이 공동으로 번역하였는데, 한시 번역은 오문복이 담당하였다. 『탐라지초본』은 ‘춘·하·추·동’ 4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필사본으로 2007년 간행의 상권에는 ‘춘·하’ 2권만을 번역하였다. 책의 편제는 ‘향토학습자료 발간에 즈음하여, 목차, 이원조 목사의 치적, 한글 번역문, 한문 원문 영인문’ 순으로 구성되었다. 최부의 <탐라시> 번역문은 ‘최보의 35절(崔溥詩三十五絶)’이라는 제목으로 203면부터 210면까지 수록하였다. 번역문은 앞서 이원진의 『역주 탐라지』 번역문을 재인용하였는데, 한 면의 왼쪽에 한문 원문을 그 오른쪽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2수 1구의 ‘육곶(六串:六鰲)’에서만 유일하게 () 속에 한자를 병기하거나 각주 처리 내용은 『역주 탐라지』와 동일하다. 최부 <탐라시>의 영인본 한문 원문은 143면부터 148면까지 수록하였다.

2.5. 오문복 번역 답수계의 『역주 증보탐라지』

답수계 편이 『역주 증보탐라지』는 2005년 제주문화원에서 간행하였다.¹¹⁾ 이 책은 김순이·김일우·홍순만·김익수·홍기표·박찬식·고응삼·김찬흡·오문복 등이 공동으로 번역하였는데, 한시는 오문복이 담당하였다. 책의 구성방식은 ‘발간사·축간사·일러두기·번역문(권두사·서·목차·본문)·찾아보기’ 순으로 되었으며, 프린트판 원문은 수록하지 않았다. 최부의 <탐라시> 번역문은 ‘최보 시’라는 제목 하에 527면부터 536면까지 수록하였는

10) 李源祚, 앞의 책, 1~379면.

11) 淡水契, 앞의 책, 1~914면.

데, 한 면의 왼편에 한문 원문을 그 오른편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는 체제이다. 한글 번역문에는 () 속에 일체 한자 병기를 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한자어를 각주 처리하였다.

2.6. 박용후 번역 김상헌의 『남사록』

박용후가 번역한 김상헌의 『남사록』은 1976년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간행한 『탐라문헌집』에 수록되었다.¹²⁾ 이 번역문은 규장각본 『남사록』을 저본으로 하였는데, 번역자 박용후가 쓴 ‘번역에 즈음하여’라는 짤막한 해설을 실고, 이어서 남사록 서, 첫째·둘째·셋째·넷째 권의 번역문을 차례로 수록하였다. 번역문 수록 하단에 그 번역문에 해당하는 한문 원문을 석 줄에서 열한 줄 정도 수록하여 원문을 쉽게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부의 <탐라시>는 61면부터 67면에 걸쳐 수록하였는데, ‘청산(靑山)·육오(六鰲)·거령(巨靈)·벽파(擘破)’ 등 일부의 한자어에 한해서 ()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별도로 각주 처리는 하지 않았다.

2.7. 김희동 번역 김상헌의 『남사록』

1992년 김희동이 번역한 김상헌의 『남사록』은 영기문화사에서 간행하였다.¹³⁾ 이 책은 청음유집본 『남사록』을 저본으로 하였는데, ‘역자의 해제, 이 책을 읽는 법, 목차, 한자 원문과 번역문, 부록(등장인물·사진·자료)’ 등의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로쓰기를 하였다. 최부의 <탐라시>는 72면부터 81면에 걸쳐 수록하였는데, 시작은 시의 제목을 ‘탐라시(耽羅詩)’라고 적고, 그 하단에 작자를 ‘최부(崔溥)’라 밝혔다. 한 면 상단에 시의 한문 원문을 세로로 활자화하고, 그 하단에 한글 번역문을 적었는데, ‘九百里, 六鰲, 巨靈河神, 圓嶠山’ 등 필요한 한자를 외형하였다. 각 흡수면 끝에는 어려운 한자어를 풀이하였다.

12) 제주도교육위원회, 앞의 책, 17~191면.

13) 金尙憲, 金禧東 譯, 『南槎錄』, 永嘉文化社, 1992, 1~317면.

2.8. 홍기표 번역 김상헌의 『남사록』

홍기표가 번역한 김상헌의 『남사록 역주』는 2008년과 2009년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 각각 제주문화원에서 간행하였다.¹⁴⁾ 상권은 역자 해제와 송시열 서문, 청음 김상헌의 1601년 7월부터 9월 일정, 해당 일정의 한문 원문과 영인본 원문을 실었고, 하권은 청음 김상헌의 1601년 10월부터 1602년 2월 일정, 해당 일정의 활자화한 원문, 역자의 청음 김상헌 『남사록』 논문 분석 등을 실었다. 이 책은 청음유집본을 저본으로 삼고 규장각본을 대교하면서 역주하였다. 최부의 <탐라시>는 상권 111면부터 130면에 걸쳐 수록하였는데, ‘탐라시 35절’이라는 제목 하에 각 절마다 번역문을 먼저 수록하고 이어서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수록하는 체제이다. 번역문은 ‘발해(渤海), 탐라국(耽羅國), 구백리(九百里), 육오(六鰲)’처럼 한자어의 경우 ()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으며, 각 면 하단에는 어려운 한자어를 각주 처리하였다. 또한 아라비아 숫자로 절 표시를 하고 활자화한 한자 원문을 260면부터 267면까지 수록하였다. 영인본 한문 원문은 53면부터 59면에 걸쳐 수록하였는데, 한 절을 두 줄로 띄어쓰기 없이 세로쓰기하였다.

2.9. 김익수 번역 이증의 『남사일록』

김익수가 번역한 이증의 『남사일록』은 2001년 제주문화원에서 간행하였다.¹⁵⁾ 이 책은 ‘발간사, 역자의 말, 목차, 번역문, 영인문’ 순으로 구성되었다. 최부의 <탐라시> 번역문은 207면부터 213면까지, 영인본 한문 원문은 242면부터 24면까지 수록하였다. ‘탐라시 삼십오절’이라는 제목 우측 하단에 ‘최금남(崔錦南)’이라는 저자를 밝히고, 이어서 한글 번역문과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수록하였는데, 원편에 한글 번역문을 실었고 오른편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수록하는 체제이다. 절 사이는 한 줄 띄

14) 金尙憲, 洪琦杓 譯註, 『南槎錄(上)』, 濟州文化院, 2008, 1~525면. ; 金尙憲, 洪琦杓 譯註, 『南槎錄(下)』, 濟州文化院, 2009, 1~387면.

15) 李增, 앞의 책, 1~506면.

어쓰기하였으며, ‘자단(紫丹), 유감(乳柑), 귤유(橘柚), 동무협(東巫峽)’ 등 일부 한자어에 한해 () 속 한자를 병기하였다. 또한 각 면 하단에는 간단한 각주 처리를 하였다.

2.10. 오창명 번역 이형상의 『남환박물』

오창명이 번역한 이형상의 『남환박물』은 2009년 푸른역사출판사에서 간행하였다.¹⁶⁾ 이 책은 이상규와 공동으로 번역하였는데, 대부분 오창명이 번역하였다고 한다. 그 구성은 ‘해제·차례·번역문·주석·찾아보기’ 순인데, 별도로 한문 원문을 활자화가거나 영인본을 수록하지 않았다. 다만 『남환박물』 수록 <황복원대가(荒服願戴歌)>에 속하는 김종직의 <탁라가>, 김충암의 <우도가>, 최금남의 <탐라시> 35절은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함께 실었다. 그러나 실제로 원문의 본문에는 이들 한시가 빠져 있어 최부의 <탐라시>는 『남사록』을 참고하여 보충하였다고 한다.¹⁷⁾ <탐라시> 번역문은 이 책의 226면부터 235면까지 수록하였는데, ‘최부의 탐라시 35절’이라는 제목 하에 각 면 원편에 한글 번역문을, 오른쪽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수록하는 모습이다. 번역문의 경우 한자어의 () 속에 한자를 병기하지 않았으나 중요한 한자어는 후주 처리하였다.

2.11. 오문복 번역 『탐라시선』

오문복이 편역한 『탐라시선』은 2006년 이화문화출판사에서 간행하였다.¹⁸⁾ 이 책은 제주에 벼슬살이 왔거나 유람으로 거쳐 간 이들의 시와 제주인이나 제주에 와있는 사람에게 보낸 시를 모아 풀이하였는데, 유배

16) 이형상, 앞의 책, 1~356면.

17) 이형상의 종손 李秀昌이 보관해오고 있는 『남환박물』 원본의 경우 목차에는 <황복원대가>에 김종직의 <탁라가>, 김정희의 <우도가>, 최부의 <탐라시>의 제목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책의 본문 속에서는 이들 시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李衡祥, 『耽羅巡歷圖·南宦博物』(影印),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144면.)

18) 吳文福 編譯, 앞의 책, 1~521면.

객의 시는 제외하였다. 제주의 풍토와 물산 등을 노래한 제영(題詠), 빼어난 풍광을 노래한 절승(絶勝), 보고 들은 느낌을 주고받은 서정, 제주 삼읍의 관아와 누정을 노래한 공해(公廡), 9곳 방호소(防護所)에 관한 방호소, 같은 제목으로 여러 수의 시를 썼거나 배율(排律)로 길게 쓴 시인 장편 등의 여섯 항목으로 나누어 시를 수록하였다. 최부의 <탐라시>는 장편에 ‘탐라시(耽羅詞)’라는 제목으로 360면부터 394면까지 수록하였다. 이 <탐라시>는 김석익의 『심재집(心齋集)』에 수록한 <탐라시>와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 수록한 <탐라시>를 대조하면서 수록하고 있다. 한 면에 한 수를 적는 방식인데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먼저 쓰고 그 하단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는 체제이다. 한글 번역문의 경우 한자를 병기하지 않았으며, 각 면 하단에 ‘글자풀이’와 ‘참고’를 두어 주석을 달았다.

3. 번역 양상

이 장에서는 최부의 <탐라시> 번역문을 중심으로 틀린 한자와 오독, 잘못된 번역, 정확하지 않은 주석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각 이본들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틀린 한자와 오독의 사례

먼저 앞서 개괄적으로 검토한 번역문들이 원래의 한문 원문과 어떻게 다르게 읽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행옥·김상조·오문복 등이 번역한 이원진의 『탐라지』를 살펴보면 김행옥과 오문복은 한글 번역문과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함께 수록하였으나 김상조는 활자화한 한문 원문 없이 한글 번역문만 수록하고 있다. 김행옥과 오문복의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원래의 한문 원문과 대교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이원진의 『탐라지』의 틀린 한자와 오독 사례

絶-句-字	이원진 탐라지	이원진 탐라지 (김행옥 역)	이원진 탐라지 (김상조 역)	이원진 탐라지 (오문복 역)	비 고
1-1-6	接	接		接	
4-3-3	丈	犬		丈	犬은 丈의 誤字
4-3-6	綿	錦		綿	
6-2-6	洲	州		洲	州는 洲의 誤字
10-2-1	已	己		已	己는 已의 誤字
11-3-3	款	款		疑	疑는 款의 誤字
13-2-7	瑩	營		瑩	營은 瑩의 誤字
14-2-7	鉞	鋹		鉞	鋹은 鉞의 誤字
15-2-1	弋	戈		弋	戈는 弋의 誤字
17-1-6	丹	舟		丹	舟는 丹의 誤字
21-3-4	我	懷		我	懷는 我的 誤字
23-4-2	周	從		周	從은 周의 誤字
25-1-2	從	周		從	周는 從의 誤字
25-3-3	虫	虫		筮	筮는 虫의 誤字
27-4-2	闔	闔		閤	閤은 闔의 誤字
27-4-3,4	簫鼓	蕭葛		簫鼓	蕭葛은 簫鼓의 誤字
28-2-3	茅	第		茅	第는 茅의 誤字
31-1-2	誇	諤		誇	諤은 誇의 誤字
31-3-3	蟻	瓊		蟻	瓊은 蟻의 誤字

김행옥 번역문을 이원진의 『탐라지』 원문과 비교해보면 여러 곳에서 틀린 글자가 나타난다. ‘接→接(1-1-6), 丈→犬(4-3-3), 綿→錦(4-3-6), 洲→州(6-2-6), 已→己(10-2-1), 瑩→營(13-2-7), 鉞→鋹(14-2-7), 弋→戈(15-2-1), 丹→舟(17-1-6), 我→懷(21-3-4), 周→從(23-4-2), 簫鼓→蕭葛(27-4-3,4), 茅→第(28-2-3), 誇→諤(31-1-2), 蟻→瓊(31-3-3)’ 등 모두 15곳에서 틀린 글자가 쓰였다. 오문복 번역에서도 ‘款→疑(11-3-3), 虫→筮(25-3-3), 闔→閤(27-4-2)’ 등 3곳에서 틀린 글자가 쓰였다.

다음으로 오문복이 모두 번역한 이원조의 『탐라지초본』과 담수계의 『증보탐라지』의 번역에서 한글 번역문과 한문 원문을 대교하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탐라지초본』과 『증보탐라지』의 틀린 한자와 오독 사례

絶-句-字	탐라지 초본	증보 탐라지	탐라지 초본 (오문복 역)	증보 탐라지 (오문복 역)	비 고
1-2-7	埃	埃	埃	埃	埃는 涖의 誤字
3-3-4	旁	房	旁	房	旁은 房的 誤字
4-3-6	錦	錦	綿	錦	
11-3-3	款	欸	疑	欸	疑와 欸는 款的 誤字
15-2-1	弋	戈	弋	戈	戈는 弋의 誤字
16-2-1	羸	羸	瀛	羸	
16-4-2	圖	藉	圖	藉	藉는 籍의 誤字
30-1-2	入	人	入	人	人은 入의 誤字
31-1-7	府	富	府	富	

『탐라지초본』의 번역에서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원래의 원문과 비교해 보면 ‘旁→旁(3-3-4), 欸→疑(11-3-3), 羸→瀛(16-2-1)’ 등 3곳에서 틀린 글자가 나타난다. ‘羸→瀛(16-2-1)’의 ‘瀛’은 이원진의 『탐라지』에 표기된 글자이다. 그런가하면 ‘埃→埃(1-2-7)’의 ‘埃’는 ‘涖’의 오자임에도 이를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다. 또한 ‘旁→旁(3-3-4)’의 경우도 『탐라지초본』을 제외한 나머지 이본들에서는 모두 ‘房’으로 쓰고 있다. 『증보탐라지』 번역을 살펴보면 원문과 다른 글자는 없으나 원문에서부터 틀린 글자를 바로잡지 않았다. ‘埃→埃(1-2-7), 欸→欸(11-3-3), 戈→戈(15-2-1), 藉→藉(16-4-2)’ 등은 각각 ‘涖, 欸, 弋, 籍’의 오자들이다.

이어서 박용후·김희동·홍기표가 번역한 『남사록』과 김익수가 번역한 『남사일록』을 한문 원문과 함께 대교하면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남사록』과 『남사일록』의 틀린 한자와 오독 사례

絶-句-字	남사록 (규장각본)	남사록 (청음유집본)	남사 일록	남사 록 (박용 후 역)	남사록 (김희동 역)	남사록 (홍기표 역)	남사 일록 (김익수 역)	비 고
1-2-1	鱈	鯨	鱈	鯨	鯨	鯨	鱈	
1-2-7	涖	涖	埃	涖	涖	涖	埃	埃는 涖의 誤字
1-4-5	九	九	六	九	九	九	六	九는 六의 誤字
3-2-1	啣	白	啣		白	白	啣	

4-3-2	雪	雲	雪	雲	雲	雲	雪	
4-3-6	錦	錦	綿	錦	錦	錦	綿	
4-4-7	光	光	光	花	光	光	光	花는 光의 誤字
10-2-1	己	己	己	己	己	己	己	己는 己의 誤字
11-3-3	款	款	款	款	款	款	欸	欸는 款의 誤字
15-2-1	弋	弋	戈	戈	弋	弋	戈	戈는 弋의 誤字
15-4-2	將	將	將	射	將	將	將	射는 將의 誤字
18-3-1	貫	貫	貫	貫	貫	貫	貫	貫는 貫의 誤字
21-1-6	逸	逸	逸	逸	逸	逸	送	送은 逸의 誤字
23-3-7	羊	佯	羊	羊	佯	羊	羊	佯은 羊의 誤字
23-4-7	鏡	鏡	鏡	鏡	境	鏡	鏡	境은 鏡의 誤字
24-2-2	予	予	予	預	予	予	予	預는 予의 誤字
26-3-7	域	域	域	城	域	域	域	城은 域의 誤字
27-1-2	將	將	將	射	將	將	將	射는 將의 誤字
27-4-3	簫	簫	簫	簫	蕭	簫	簫	蕭는 簫의 誤字
28-2-7	扉	扉	扉	扇	扉	扉	扉	扇은 扉의 誤字
31-1-7	富	府	富	府	府	府	富	
32-4-3	白	白	白	杏	白	白	白	杏은 白의 誤字
35-1-7	地	地	地	在	地	地	地	在는 地の 誤字

박용후가 번역하여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규장각본 한문 원문과 대교하면 ‘鱠→鯨(1-2-1), 光→花(4-4-7), 己→己(10-2-1), 弋→戈(15-2-1), 將→射(15-4-2, 27-1-2), 貫→貫(18-3-1), 予→預(24-2-2), 域→城(26-3-7), 扉→扇(28-2-7), 富→府(31-1-7), 白→杏(32-4-3), 地→在(35-1-7)’ 등 모두 12곳에서 오자가 나타난다. 김희동이 번역하여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청음유집본 한문 원문과 대교하면 ‘鏡→境(23-4-7), 簫→蕭(27-4-3)’ 2곳에서 오자가 쓰였다. 그러나 ‘己→己(10-2-1), 佯→佯(23-3-7)’ 등은 원래 한문 원문에서부터 오자로 쓰인 경우로서 각각 ‘己, 羊’ 등이 맞는 글자이나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홍기표가 번역하여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청음유집본과 대교하면 ‘己→己(10-2-1), 佯→羊(23-3-7)’ 등 2곳에서 틀린 글자가 쓰였으나 이는 청음유집본 원문이 잘

못된 것을 규장각본을 참고하여 바로잡고 있다. 김익수가 번역하여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남사일록』 원문과 대교하면 ‘款→欸(11-3-3), 逸→送(21-1-6)’ 2곳에서 틀린 글자가 쓰였으며, ‘戈→戈(15-2-1)’은 원래 원문에서부터 오자로 쓰인 것으로 ‘弋’이 바른 글자이나 바로잡지 않았다.

오창명이 번역한 『남환박물』과 오문복이 번역한 『탐라시선』의 번역문을 각각 『남사록』, 『심재집』과 『탐라지초본』의 한문 원문과 대교하면 다음의 <표4>와 같다.

<표4> 『남환박물』과 『탐라시선』의 틀린 한자와 오독 사례

絶-句-字	탐라지 (이원진)	탐라지 초본	남사록 (규장각본)	남사록 (청음유집본)	심재집	남환박물 (오창명 역)	탐라시선 (오문복 역)	비고
1-1-6	接	接	接	接	接	接	接	
2-2-3	擘	擘	擘	擘	劈	擘	劈	
2-4-4	里	里	里	里	重	里	重	
3-2-1	啣	啣	啣	白	含	啣	含	
4-3-6	綿	錦	錦	錦	錦	綿	錦	
5-2-1.2	絃管	絃管	絃管	絃管	管絃	絃管	絃管	
5-2-3	遙	遙	遙	遙	遼	遙	遙	
7-2-3.4	古穴	古穴	古穴	古穴	穴古	古穴	古穴	
11-3-3	欸	欸	欸	欸	欸	疑	疑	疑는欸의誤字
12-1-5	掃	掃	掃	掃	掃	掃	歸	歸는掃의誤字
14-2-6	劔	劔	劔	劍	劔	鉞	劔	鉞은劔의誤字
16-2-1	羸	羸	羸	羸	羸	羸	羸	
16-3-3	儘	儘	儘	儘	儘	盡	盡	
19-3-5	掣	掣	掣	掣		製	掣	
20-4-6	蘸	蘸	蘸	蘸		醮	醮	
21-1-7	趣	趣	興	興		趣	趣	
22-1-3	蜂	蜂	蜂	蜂		蜂	峰	峰은蜂의誤字

23-3-7	羊	羊	羊	徉		羊	羊	徉은 羊의 誤字
31-1-7	府	府	富	府		富	府	
35-4-3, 4	生平	生平	平生	平生	平生	生平	平生	

오창명이 번역한 『남환박물』의 현대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그가 저본으로 삼았다고 하는 『남사록』(규장각본·청음유집본)의 한문 원문과 대교하면 ‘錦→緞(4-3-6), 欸→疑(11-3-3), 劔→鉞(14-2-6), 羸→瀛(16-2-1), 儘→盡(16-3-3), 掣→製(19-3-5), 醮→醮(20-4-6), 興→趣(21-1-7), 平生→生平(35-4-3,4)’ 등 9곳에서 틀린 글자가 나타난다. 이 가운데 ‘欸→疑(11-3-3)’는 원문을 틀리게 읽는 경우이며, 나머지 ‘錦→緞(4-3-6), 羸→瀛(16-2-1), 儘→盡(16-3-3), 掣→製(19-3-5), 醮→醮(20-4-6), 興→趣(21-1-7), 平生→生平(35-4-3,4)’ 등은 『남사록』의 원문 표기가 아닌 이원진 『탐라지』의 원문 표기를 따르고 있다. 오문복이 번역하여 현대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탐라지초본』과 『심재집』을 중심으로 대교하면 ‘欸→疑(11-3-3), 儘→盡(16-3-3), 醮→醮(20-4-6), 蜂→峰(22-1-3), 生平→平生(35-4-3,4)’ 등 5곳에서 한문 원문과 다르게 읽고 있다. 그런가 하면 ‘里(重)→重(2-4-4), 啣(舍)→舍(3-2-1), 掃→歸(12-1-5)’ 등도 다른 이본의 원문과 비교할 때 정본에 가까운 바른 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3.2. 잘못된 번역 사례

우선 이원진의 『탐라지』를 번역한 김행욱·김상조·오문복의 해석에서 잘못된 사례를 찾아 대교하여 표를 만들면 다음의 <표5>와 같다.

<표5> 이원진의 『탐라지』의 잘못된 번역 사례

絶-句	한문 원문	김행옥 역	김상조 역	오문복 역
4-3	白雪丈餘紅 綿樣	백설이 열자가 넘 어 붉은 비단 같으 니	백설이 한 발이 넘 어 붉은 비단 같으 니	흰 구름 한길 남짓 붉은 비단 펼쳐놓 은 듯
5-3	百里香雲繚 繞中	백리의 향기로운 구름이 얽힌 중에	백리에 향기로운 구름이 얽혀 있으 니	백 리에 흰 구름은 얽히고서
8-4	地瀾天高未 有廬	땅은 광활하고 하 늘은 높아서 밥그 릇이 없었도다	땅은 넓고 하늘은 높은데 집도 없이 살았다네	천지는 높고 광활 하나 아직 움막도 없네
13-4	渠心厭亂知 相應	난을 진압함에 서 로 호응함을 알았 도다	난리를 싫어하여 호응하여 도왔다네	적들도 난리에 피 곤하여 서로 응했 네
15-1	到頭安堵復 蘇息	마침내 안도하여 다시 소생하니	마침내 안도하여 다시 소생하니	가는 곳마다 마음 놓아 다시 숨을 돌 리우
16-2	瀛得王家德 化宣	왕가의 덕화가 미 침을 알았네	왕가의 덕화를 입 었으니	영주 땅은 왕가의 덕화를 입었네
17-3	又有同舟許 使君	또 같은 배를 타서 그대로 하여금 허 락함이 없으니	또 같은 배를 타 그대에게 허락하니	또 허 목사와 배를 함께 타니
18-1	館頭巖畔卸 征鞍	진관머리(鎗頭) 바 위 곁에 가는말을 세웠는데	관 머리 바위 곁에 말을 세우니	관두량 암반 위에 말안장 풀었소
19-3	暫試青蛇製 海雲	잠간 푸른 뱀(青蛇) 이 바닷구름 만들 을 시험하니	푸른 뱀이 바다 구 름을 만들어내니	잠간 키 잡으니 해 운을 시험하듯
21-1	海吐瑞山供 逸趣	바다는 서산(瑞山) 을 토하여 뛰어난 취미를 제공하고	바다는 상서로운 산을 토하여 뛰어 난 취미를 제공하 고	바다는 서산을 토 해내 흥취를 갖추 고
23-1	遠人頗職尊 王命	옛날 사람들은 자 못 왕명이 높음을 아는데	옛 사람들은 왕명 이 높음을 알았고	멀리서 온 사람 자 못 왕명의 존엄함 을 알고
24-2	護予呵擁城 中馳	수위병이 꾸짖어 성중을 달리도다	수위병 꾸짖어 성 안으로 달렸네	나를 옹호하며 성 안으로 달린다네
26-4	閭閻到處杖 皆鳩	고을의 이르는 곳 마다 편안함을 얻 도다	고을의 이르는 곳 마다 모두 편안하 구나	마을마다 이르는 곳엔 모두 늙은이 로다

‘白雪丈餘紅綿樣(4-3)’에서는 ‘紅綿’을 모두 ‘紅錦’으로 잘못 읽고 있다. 그러나 ‘紅綿’과 ‘紅錦’은 엄연히 다른 뜻으로 ‘紅綿’이 ‘목면(木綿)’의 별칭으로 목화를 가리키는 말인 데 반해 후자인 ‘紅錦’은 ‘붉은 비단’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원지의 『탐라지』에서는 ‘紅錦’이 아닌 ‘紅綿’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행옥·김상조·오문복의 번역에서 모두 ‘紅錦’의 ‘붉은 비단’으로 잘못 읽고 있다.

‘百里香雲繚繞中(5-3)’에서는 ‘香雲’을 ‘향기로운 구름’과 ‘흰 구름’으로 원뜻과 달리 읽고 있다. 구름이 향기롭다는 해석도 어색하지만 흰 구름이라고 하면 ‘白雲’의 뜻이므로 ‘香雲’의 뜻을 살린 해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香雲’의 원뜻인 ‘상서로운 구름’이나 ‘아름다운 구름’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번역일 것이다.

‘地闊天高未有廬(8-4)’에서는 김행옥의 번역 “땅은 광활하고 하늘은 높아서 밥그릇이 없었도다”에서 ‘未有廬’를 “밥그릇이 없었도다”로 해석함이 문맥상 어색하다. 김상조의 번역 “집도 없이 살았다네”나 오문복의 번역 “음막도 없네”가 문맥상 더 어울린다.

‘渠心厭亂知相應(13-4)’에서는 “난을 진압함에 서로 호응함을 알았도다”의 김행옥의 번역은 잘못되었다. ‘전쟁에 싫증이 남’이라는 ‘厭亂’의 원뜻을 ‘난을 진압하다’로 틀리게 읽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마조마한 마음’의 뜻인 ‘渠心’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김상조의 번역 “난리를 싫어하여 호응하여 알았네”나 오문복의 번역 “적들도 난리에 피곤하여 서로 응했네”가 더 적합한 번역이다.

‘到頭安堵復蘇息(15-1)’에서는 “가는 곳마다 마음 놓아 다시 숨을 돌리오”의 오문복의 번역에서 ‘到頭’를 “가는 곳마다”로 읽는 것보다는 바로 앞의 내용인 14절의 삼별초 난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원뜻인 ‘마침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알맞다.

‘贏得王家德化宣(16-2)’에서는 “왕가의 덕화가 미침을 알았네”의 김행옥의 번역이나 “왕가의 덕화를 입었으니”라는 김상조의 번역에서 ‘贏得’을 ‘호감·동감 따위를 얻음’의 ‘贏得’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영주 땅은 왕가의 덕화를 입었네”의 오문복의 해석이 더 정확한 번역이다.

‘又有同舟許使君(17-3)’에서는 “또 같은 배를 타서 그대로 하여금 허

락함이 없으니”의 김행옥의 번역이나 “또 같은 배를 타 그대에게 허락하니”의 김상조의 번역은 잘못되었다. ‘許使君’은 “그대로 하여금 허락함 없으니”나 “그대에게 허락하니”로 해석할 말이 아니라 최부의 <금남표해록>에 보면 최부와 같은 배를 타고 제주에 들어왔던 새로 부임하는 제주목사 허희(許熙)를 가리키는 말이다.¹⁹⁾ 오문복의 해석 “또 허 목사와 배를 함께 타니”가 맞는 번역이다.

‘館頭巖畔卸征鞍(18-1)’에서는 “진관머리(館頭) 바위 곁에 가는 말을 세웠는데”의 김행옥의 번역과 “관 머리 바위 곁에 말을 세우니”의 김상조의 번역에서 ‘館頭’를 ‘진관머리’나 ‘관 머리’로 읽는 것은 잘못이다. ‘館頭’는 ‘관두량(館頭梁)’이라는 지명으로 전라남도 해남현 남쪽 41리 관두산 밑에 있었던 포구로 제주를 왕래하는 배가 이 산 밑에 머물곤 했다.²⁰⁾ ‘관두량 바위 밑 말안장 내려놓고’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듯하다.

‘曹試靑蛇製海雲(19-3)’에서는 “잠깐 키 잡으니 해운을 시험하듯”의 오문복은 번역은 잘못되었다. ‘靑蛇’에서 ‘뱀’의 뜻인 ‘蛇’를 ‘키’의 뜻인 ‘舵’로 틀리게 읽고 있다. ‘靑蛇’는 ‘푸른 뱀’의 뜻으로 동쪽 바다를 관장한다는 해신이다. “잠깐 푸른 뱀이 바다구름 만듭을 시험하니”의 김행옥 번역이 더 정확하다.

‘海吐瑞山供逸趣(21-1)’에서는 “바다는 상서로운 산을 토하여 뛰어난 취미를 제공하고”의 김상조의 번역은 잘못되었다. ‘瑞山’은 ‘상서로운 산’의 뜻이 아니라 지금의 제주시 우도면 소재의 섬인 ‘우도(牛島)’를 가리키는 지명이기 때문이다.²¹⁾ 따라서 박용후나 오문복의 번역이 더 적합하다.

‘遠人頗職尊王命(23-1)’에서는 “옛날 사람들은 자못 왕명이 높음을 아는데”의 김행옥의 번역이나 “옛 사람들은 왕명이 높음을 알고”의 김상조의 번역에서 ‘遠人’을 모두 “옛(날) 사람들”로 번역하고 있는데, 원뜻인

19) 최부의 <금남표해록>의 서두에 보면 제주 새 목사 허희(許熙) 등과 함께 관두량(館頭梁)에서 배를 타 12일 저녁에 제주 조천관에 도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2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7, 海南縣條

21) ‘瑞山’을 우도(牛島) 이외에도 송악산(松岳山), 비양도(飛揚島), 군산(軍山) 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먼 곳 사는 사람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다. 또한 오문복의 해석 “멀리서 온 사람 자못 왕명의 존엄함을 알고”의 “멀리서 온 사람”도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번역이다.

‘護予呵擁城中颯(24-2)’에서는 “수위병이 꾸짖어 성중을 달리도다”의 김행옥의 번역이나 “수위병 꾸짖어 성 안으로 달렸네”의 김상조 번역에서 ‘護予呵擁’을 “수위병이 꾸짖어”로 해석함은 ‘呵擁’이 ‘서로 부르며 에워싸는 것’이라는 원 뜻을 감안할 때 바른 번역이 아니다. 오문복의 해석 “나를 옹호하며 성 안으로 달린다네”가 더 적합한 번역이다.

‘閭闔到處杖皆鳩(26-4)’에서는 “고을의 이르는 곳마다 평안함을 얻도다”의 김행옥의 번역이나 “고을의 이르는 곳마다 편안하구나”의 김상조의 번역에서 ‘杖皆鳩’를 “평안함을 얻도다”나 “편안하구나”로 해석하고 있는데 적합한 번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鳩杖’은 ‘비둘기 장식이 붙은 노인의 지팡이’로 옛날 팔구십된 노인에게 구장을 하사하였으므로 결국 ‘많은 노인’을 뜻하기 때문이다. 오문복의 해석 “마을마다 이르는 곳엔 모두 늙은이로다”가 더 알맞다.

다음으로 이원조의 『탐라지초본』과 담수계의 『증보탐라지』 수록 최부의 <탐라시>를 번역한 오문복의 번역에서 잘못된 사례를 찾아보면 다음의 <표6>과 같다. 특히 『탐라지초본』 번역의 경우 이원진의 『탐라지』 번역을 그대로 옮겨오으로써 두 이본 간 적어도 여섯 곳에서 나타나는 글자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²²⁾ 앞에서 거론된 것과 동일한 구는 가급적 재논의를 피하고자 한다.

<표6> 『탐라지초본』과 『증보탐라지』의 잘못된 번역 사례

絶-句	한문 원문		오문복 역	
	탐라지초본	증보탐라지	탐라지초본	증보탐라지
14	一點彈丸六百里	一點彈丸六百里	한 점의 탄환 같지만 주위가 사백 리	한 점의 탄환 같지만 주위가 사백 리

22) ‘接→接(1-1-6), 涘→埃(1-2-7), 房→旁(3-3-4), 綿→錦(4-3-6), 瀛→贏(16-2-1), 製→掣(19-3-5)’ 등 여섯 곳이다.(윤치부, <최부 「탐라시」의 이본 고찰>, 『새국어교육』86,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462~464면.)

2-1	中有青螺駕 六鰲	中有青螺駕 六鰲	중양에 산이 솟아 육곶(六串)을 이루었 소	섬 가운데 자라를 탄 듯 소라소리 같은 파란 봉우리
4-3	白雪丈餘紅 綿樣	白雪丈餘紅 錦樣	흰 구름 한 길 남짓 붉은 비단 펼쳐놓은 듯	흰 눈이 한 길이나 쌓 여도 빨간 꽃 피어
5-2	絃管遙聞第 幾疊	絃管遙聞第 幾疊	타는 줄, 부는 피리 소리 몇 번이던가	겹겹한 골짜기에 악기 소리 들리고
5-3	百里香雲線 繞中	百里香雲線 繞中	백 리에 흰 구름은 엄히고설켜	향기로운 구름이 아득 히 가려 있을 땐
12-1	松岳龍興掃 黑金	松岳龍興掃 黑金	송악에 왕이 일어나 오랑캐를 무찌르고	송악에 왕이 일어나 북 쪽으로 마음이 돌아가 므로
15-1	到頭安堵復 蘇息	到頭安堵復 蘇息	가는 곳마다 마음 놓아 다시 숨을 돌 리오	편안히 살게 되니 충후 한 마음 다시 살아나
16-2	贏得王家德 化宣	贏得王家德 化宣	영주 땅은 왕가의 덕화를 입었네	왕가에서 퍼는 덕치와 교화를 터득하여
19-3	暫試青蛇掣 海雲	暫試青蛇掣 海雲	잠깐 키 잡으니 해 운을 시험하듯	청사를 시험한 듯 잠깐 바다구름이 걷히니
23-1	遠人頗職尊 王命	遠人頗職尊 王命	멀리서 온 사람 자 못 왕명의 존엄함을 알고	먼 지방 사람들이지만 자못 왕명을 높일 줄 알아
29-1	民風淳儉看 來取	民風淳儉看 來取	풍속이 순박함을 보 고서야 알았으며	백성들의 풍속이 순박 하고 검소하여 시취(試 取)하여 불만하고

‘一點彈丸六百里(1-4)’에서는 『탐라지초본』과 『증보탐라지』의 경우 모 두 오문복이 번역하였는데 동일하게 “한 점의 탄환 같지만 주위가 사백 리”로 읽고 있다. 원문의 ‘六百里’를 모두 ‘사백 리’로 잘못 번역하였 다.²³⁾

23) 김상헌의 『남사록』22일 병진조에서는 제주섬의 주위를 ‘오백 리’라고 적고 있다. (“一島周圍 不過五百里”) 그러나 김상헌의 『남사록』에 수록된 최부의 <탐라시> 원문에서는 ‘육백 리’가 아닌 ‘구백 리’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제주도의 둘레로 인식함이 아니라 조천관에서 관두량까지가 970리로 육지의 끝에서 900여 리 떨어진 곳임을 이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이형상, 『남환박물』,

‘中有靑螺駕六鰲(2-1)’에서는 『탐라지초본』에서 “중양에 산이 솟아 육 곳(六串)을 이루었소”로 번역한 반면 『증보탐라지』에서 “섬 가운데 자리를 탄 듯 소라꼬리 같은 파란 봉우리”로 번역하였는데, ‘六鰲’는 ‘여섯 마리의 자라’로 등에 삼신산(三神山)을 지고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후자가 더 문맥에 어울린다. <표9>의 오창명의 『남환박물』 번역에서도 “섬 가운데 여섯 거북이 푸른 소라 수레 있으니”로 해석하여 ‘靑螺’가 결국 ‘멀리 보이는 푸른 산’을 보고 말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絃管遙聞第幾疊(5-2)’에서는 『탐라지초본』의 “타는 줄, 부는 피리 소리 몇 번이던가”에서는 ‘멀리서 들리니’의 ‘遙聞’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증보탐라지』의 “겹겹한 골짜기에 악기 소리 들리고”에서는 ‘第幾疊’을 “겹겹한 골짜기”로 읽고 있는데 이보다는 전자의 “몇 번이던가”가 더 적합한 번역이다.

‘松岳龍興掃黑金(12-1)’에서는 『증보탐라지』의 번역 “송악에 왕이 일어나 북쪽으로 마음이 돌아가므로”에서 ‘掃黑金’을 “북쪽으로 마음이 돌아가므로”로 잘못 읽고 있다. 이보다는 『탐라지초본』에서의 번역처럼 “오랑캐를 무찌르고”가 더 적합한 번역이다.

다음으로 『남사록』 수록 최부의 <탐라시> 번역의 잘못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7>과 같다.

<표7> 『남사록』의 잘못된 번역 사례

絶句	한문 원문		박용후 역	김희동 역	홍기표 역
	규장각본	청음유집본			
3-2	啣蛤幾廻貢 貢鳥	白蛤幾廻貢 貢鳥	공공새는 몇 번이나 백합(白蛤) 물고 날았는가	白蛤이 몇 번이나 貢貢새를 회피했나	공공조(貢貢鳥)는 몇 번이나 백합(白蛤) 물고 날았는가
10-3	恰似老人 朝北斗	恰似老人朝 北斗	흡사히 늙은이가 북두(北斗) 뵈과 같았으니	흡사히 老人星이 北斗星을 뵈옵드시	흡사 노인성(老人星)이 북두성(北斗星)을 뵈옵듯이
11-1	好爵旋封 兄及弟	好爵旋封兄 及弟	좋은 벼슬 두루 봉해 형과 아우 차지하니	爵을 좋아하여 兄弟가 封祿받고	좋은 벼슬(爵) 형제에게 두루 봉하니

12-1	松岳龍興 掃黑金	松岳龍興掃 黑金	송악(松岳)에 영웅 나와 흑 금(黑金)을 쓸 었으니	松岳과 龍興 에선 黑金을 쏟어내고	송악(松岳)영 웅(龍)이 일어 나 흑금(黑金) 을 없애니
13-1	候風鳥口 金方慶	候風鳥口金 方慶	후풍도(候風鳥) 어귀에는 김방 경(金方慶)이 머물었고	候風하는 섬 어귀엔 金方 慶 장군이요	후풍도(候風鳥) 어귀에는 김방 경(金方慶)이요
13-2	明月浦頭 都統瑩	明月浦頭都 統瑩	명월포(明月浦) 머리에는 도통 (都統) 영(瑩)이 상륙(上陸)했네	달 밝은 浦頭 에는 都統使 崔瑩장군	명월포(明月浦) 머리에는 도통 사(都統使) 최 영(崔瑩)이네
15-1	到頭安堵 復蘇息	到頭安堵復 蘇息	간 곳마다 마 음 놓고 다시 숨을 돌려 쉬 어	드디어 安堵 하니 다시 살 아났는데	드디어 안도하 니 다시 숨을 돌리고
15-4	却將土物 供臣職	却將土物供 臣職	토산물을 받들 어서 신직(臣 職)에게 바쳤 네	앞으로 土產 物 바쳐 백성 할 일 다하리 라	나이가 토산물 바쳐 신하된 직분 다하리
18-2	海色天光 入望寒	海色天光入 望寒	바다 빛과 하 늘 빛이 보름 달에 쓸쓸하네	바다와 하늘 빛을 바라보 니 쓸쓸하네	바다 색 하늘 빛은 바라보니 쓸쓸하네
19-3	暫試青蛇 掣海雲	暫試青蛇掣 海雲	잠간 동안 청 사(青蛇)가 해 운(海雲) 끊을 시험하니	잠시 青蛇의 재주를 시험 하니	잠시 청사(青蛇) 를 시험한 듯 바다를 미끄러 져 가더니
21-1	海吐瑞山 供逸興	海吐瑞山供 逸興	바다에 서산 (瑞山) 생겨 좋 은 흥(興) 일으 키고	바다는 상서 로운 산을 토 해내고	바다가 토해 낸 서산(瑞山)에는 신비한 흥취가 배어있고
23-3	浦口纒巖 道士羊	浦口纒巖道 士羊	갯가의 험한 바위 도사(道 士)가 헤매고	포구의 험한 바위 道士나 거닐겠고	포구의 울퉁불 퉁한 바위는 도사양(道士羊) 인 듯하고
23-4	路周磊落 仙人鏡	路周磊落仙 人鏡	길가의 많은 돌은 선인(仙 人)이 거울 삼 네	길 돌레 낭떠 러지 仙人의 境界구나	길 주위의 시 원한 경치 磊 落 는 신선의 지경이네
26-3	渾把生涯 登壽域	渾把生涯登 壽域	혼연(渾然)히 생애(生涯) 잡 아 수성(壽域) 에 오르니	모두 다 生業 을 가져 오래 도록 살아서	모두 생업을 지녀 장수(長壽) 지경에 사니
26-4	閭閻到處	閭閻到處杖	마을의 간 곳	여염엔 어느	마을마다 곳곳

	杖皆鳩	皆鳩	마다 지팡이가 다 모이네	집이나 老人 들이 많다네	에 노인들이 많다네
28-4	橫笛堤兒 牧馬歸	橫笛堤兒牧 馬歸	젓대 부는 방 죽 아이 말을 치고 돌아오네	피리 불며 애 데리고 말치 기 돌아오네	피리 부는 목 동은 말 몰아 돌아온다겠지

‘啣(白)蛤幾廻貢貢鳥(3-2)’에서는 홍기표의 번역이 청음유집본을 저본으로 하여 ‘白蛤幾廻貢貢鳥’를 번역하였음에도 “공공조(貢貢鳥)는 몇 번이나 백합(白蛤) 물고 날았는가”로 읽음으로써 ‘白蛤’을 ‘啣蛤’의 뜻으로 잘못 읽고 있다. 이는 규장각본의 ‘啣蛤’의 뜻으로 읽고 있는 사례로 옳은 번역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청음유집본 원문에 충실해 읽기 위해서는 김희동의 번역처럼 “白蛤이 몇 번이나 貢貢새를 회피했나” 등으로 읽는 게 더 옳을 것이다.

‘恰似老人朝北斗(10-3)’에서는 박용후의 번역 “흡사히 늙은이가 북두(北斗) 뵈과 같았으니”에서 ‘老人’을 ‘늙은이’로 읽는 게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보다는 김희동의 번역 “흡사히 老人星이 北斗星을 뵈옵드시”와 홍기표의 번역 “흡사 노인성(老人星)이 북두성(北斗星)을 뵈옵듯이”에서 처럼 ‘老人’을 ‘노인성’으로 해석함이 문맥에 더 맞고 자연스럽다.

‘好爵旋封兄及弟(11-1)’에서는 “爵을 좋아하여 兄弟가 封祿받고”의 김희동의 번역에서 ‘好爵’을 “爵을 좋아하여”로 읽고 있는데, 이보다는 원 뜻인 ‘좋은 벼슬’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박용후의 번역 “좋은 벼슬 두루 봉해 형과 아우 차지하니”나 홍기표의 번역 “좋은 벼슬 [爵] 형제에게 두루 봉하니”에서처럼 원 뜻인 ‘좋은 벼슬’로 읽는 것이 문맥상 더 어울린다.

‘松岳龍興掃黑金(12-1)’에서는 “松岳과 龍興에선 黑金を 쓸어내고”의 김희동의 번역에서 ‘龍興’을 ‘松岳’과 대등하게 고유명사로 읽고 있는데 문맥상 어울리지 않은 번역이다. 이보다는 박용후의 “영웅 나와”나 홍기표의 “용이 일어나”가 문맥상 더 어울리는 번역이다.

‘候風鳥口金方慶(13-1)’에서는 김희동의 번역 “候風하는 섬어귀엔 金方慶 장군이요”에서 ‘候風鳥’를 지명이 아닌 “후풍하는 섬”으로 뜻을 풀

어서 읽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번역이다. 왜냐하면 ‘候風島’는 다음 구의 ‘明月浦’와 대구를 이루기 때문에 ‘候風島’를 지명이 아닌 “후풍하는 섬”으로 읽으면 ‘明月浦’ 역시 지명이 아닌 “달 밝은 포구”로 풀어서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월포’는 “달 밝은 포구”로 읽을 수 없는 지명으로 명월진(明月鎭)·명월성(明月城) 등이 있었던 곳이다. 따라서 ‘후풍도’를 ‘명월포’에 맞추어서 ‘추자도’의 지명으로 읽은 게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

‘明月浦頭都統瑩(13-2)’에서는 바로 앞서 지적한 것처럼 “달 밝은 浦頭에는 都統使 崔瑩장군”의 김희동의 번역에서 지명인 ‘明月浦’를 “달 밝은 포두”로 뜻을 풀어서 잘못 읽고 있다.

‘却將土物供臣職(15-4)’에서는 “토산물을 받들어서 신직(臣職)에게 바쳤네”의 박용후의 번역에서 ‘供臣職’을 “신직(臣職)에게 바쳤네”로 읽고 있는데, 이보다는 “신하된 직분 다하리”의 홍기표나 김희동의 번역이 더 어울린다.

‘海色天光入望寒(18-2)’에서는 박용후의 번역 “바다 빛과 하늘 빛이 보름달에 쓸쓸하네”에서 ‘入望’을 “보름달에”로 읽고 있는데, 이는 ‘入望’의 원뜻인 ‘시야에 들어옴’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번역이다. 이보다는 오히려 김희동의 번역 “바다와 하늘 빛을 바라보니 쓸쓸하네”나 홍기표의 번역 “바다 색 하늘 빛은 바라보니 쓸쓸하네”가 원뜻의 의미를 더 잘 살린 번역이다.

‘浦口纔巖道士羊(23-3)’에서는 “갯가의 험한 바위 도사(道士)가 헤매고”의 박용후의 번역이나 “포구의 험한 바위 道士나 거닐겠고”의 김희동의 번역은 ‘道士羊’의 고사를 제대로 읽지 못한 번역이다. ‘도사양은 한 나라 때 단계(丹溪)에 황초평(黃初平)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양을 치다가 도사를 따라 도를 닦게 되었고, 형이 동생을 찾아가 치던 양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자 산에 두었다하여 가보니 하얀 돌들만 있었으므로 초평이 가서 돌들을 꾸짖자 모두 양으로 변했다는 고사를 표현한 말이다. 따라서 홍기표의 번역 “포구의 울퉁불퉁한 바위는 도사양(道士羊)인 듯하고”가 고사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낸 번역이다.

‘路周磊落仙人鏡(23-4)’에서는 박용후의 번역 “길가의 많은 돌은 선인(仙人)이 거울 삼네”에서 ‘磊落’을 “많은 돌”로 읽음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磊落’을 ‘仙人鏡’과 호응시켜 읽기 위해서는 ‘磊落’을 ‘맑이 쌓여 있는 모양’으로 읽기보다는 ‘밝은 모양, 또렷한 모양’의 뜻으로 읽는 게 더 좋을 듯하다. 김희동의 번역 “길 둘레 낭떠러지 仙人의 境界구나”에서 ‘磊落’을 ‘낭떠러지’로 읽거나, ‘仙人鏡’을 “仙人의 境界구나”로 읽음으로써 ‘鏡’을 ‘境’으로 읽고 있는데, 이 또한 정확한 읽기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보다는 ‘길가의 또렷한 모습 신선 거울 같네’ 정도로 읽음이 더 좋을 듯하다.

‘橫笛堤兒牧馬歸(28-4)’에서는 “피리 불며 애 데리고 말치기 돌아오네”의 김희동의 번역에서 ‘橫笛堤兒’을 “피리 불며 애 데리고”로 읽고 있는데, ‘堤兒’를 “애 데리고”로 읽기보다는 “독에 있던 아이” 정도로 읽는 게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橫笛堤兒’는 ‘독에서 피리 불던 아이’로 읽는다면 박용후의 “젓대 부는 방죽아이”의 번역이 가장 어울린다.

다음으로 이증의 『남사일록』을 번역한 김익수의 해석에서 잘못된 사례를 찾아보면 다음의 <표8>과 같다.

<표8> 『남사일록』의 잘못된 번역 사례

絶句	한문 원문	김익수 역
3-2	啣哈幾廻貢鳥	새는 조개를 물고 몇 번이나 꼬았을까
4-3	白雪丈餘紅綿樣	흰 눈이 한 발 넘어도 붉은 비단인 양
5-3	百里香雲繚繞中	백리에 꽃 향기 구름 같이 돌린 가운데
11-3	梯航款叩不辭頻	배로 다리 놓아 자주 간곡히 찾아뵈며
13-1	候風鳥口金方慶	섬포구에 후풍(候風)하던 김방경(金方慶)
21-1	海吐瑞山供逸趣	바다에 상서로운 산 펼쳐져 배어난 정취 갖추고
23-3	浦口纒巖道士羊	포구는 높디높아 도사(道士)가 노니는 곳
28-4	橫笛堤兒牧馬歸	피리 불며 독에 있던 아이 말 먹이고 돌아오네
31-1	更誇物產荊楊富	다시 물산을 자랑하면 풍부한 가시나무 버드나무

‘更誇物產荊楊富(31-1)’에서는 “다시 물산을 자랑하면 풍부한 가시나무 버드나무”로 번역함으로써 ‘荊楊’을 “가시나무 버드나무”로 읽고 있는데, 이보다는 ‘荊楊’을 ‘형주(荊州)·양주(楊州)’로 읽어 ‘물산은 형주 양주보다 자랑스럽고’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듯하다.

다음은 이형상의 『남환박물』을 번역한 오창명의 해석에서 잘못된 사례

를 찾아보면 다음의 <표9>와 같다.

<표9> 『남한박물』의 잘못된 번역 사례

絶句	한문 원문			오창명역
	탐라지 (이원진)	남사록 (규장각본)	남사록 (청음유집본)	
2-1	中有靑螺 駕六鰲	中有靑螺 駕六鰲	中有靑螺駕 六鰲	섬 가운데 여섯 거북이 푸른 소라 수레 있으니
4-3	白雪丈餘 紅綿樣	白雪丈餘 紅錦樣	白雪丈餘紅 錦樣	흰 구름 한 길 남짓 붉은 비단 펼 쳐놓은 듯
5-3	百里香雲 繚繞中	百里香雲 繚繞中	百里香雲繚 繞中	백 리에 흰 구름은 얽히고설켜
16-2	贏得王家 德化宣	贏得王家 德化宣	贏得王家德 化宣	영주 땅은 왕가의 덕화를 입었네
18-1	館頭巖畔 卸征鞍	館頭巖畔 卸征鞍	館頭巖畔卸 征鞍	관머리 암반 위에 말안장 풀었소
19-3	暫試靑蛇 製海雲	暫試靑蛇 製海雲	暫試靑蛇掣 海雲	잠깐 키 잡으니 해운을 시험하듯
23-3	浦口纒巖 道士羊	浦口纒巖 道士羊	浦口纒巖道 士羊	포구의 바위엔 도사가 양떼인 듯 어질고
23-4	路周磊落 仙人鏡	路周磊落 仙人鏡	路周磊落仙 人鏡	노변의 돌무더기는 신선의 거울인 듯
25-1	便從父老 問風土	便從父老 問風土	便從父老問 風土	시끄러운 방언은 통역해야 알아듣네
31-1	更誇物產 荊楊府	更誇物產 荊楊富	更誇物產荊 楊府	또 물산은 너럭해 형주양주와 같소

‘便從父老問風土(25-1)’에서는 “시끄러운 방언은 통역해야 알아듣네”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앞의 구인 ‘聒耳語音譯後知(24-1)’의 번역을 잘못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문득 어른에게 물어보니” 정도로 읽는 게 옳을 듯하다.

다음은 오문복이 엮은 『탐라시선』에서 오문복이 잘못 번역한 사례를 찾아보면 다음의 <표10>과 같다.

<표10> 『탐라시선』의 잘못된 번역 사례

絶句	한문 원문		오문복역
	탐라지초본	심재집	

1-4	一點彈丸六 百里	一點彈丸六 百里	한 점의 탄환 같지만 주위가 사백 리
3-2	啣蛤幾廻貢 貢鳥	含蛤幾廻貢 貢鳥	조개가 입 벌린 듯한 속을 새들만 날아드네
4-3	白雪丈餘紅 錦樣	白雪丈餘紅 錦樣	흰 눈이 한 길이나 쌓여도 빨간 꽃 피어
12-1	松岳龍興掃 黑金	松岳龍興掃 黑金	송악에 왕이 일어나 북쪽으로 마음이 돌아가므로
12-2	預先歸去獻 其琛	預先歸去獻 其琛	미리 돌아갈 마음 있어 보배를 바쳤는데
15-1	到頭安堵復 蘇息	到頭安堵復 蘇息	편안하게 살게 되니 (충후한 마음) 다시 되살아나
22-1	燕尾蜂腰千 萬形		연미봉 허리 뒤에 보이는 천만 가지 모양새들
26-1	人知種植飽 胸胸		사람들은 모두다 굴나무를 심어 생활이 풍족하여
28-2	石田茅屋矮 柴扉		돌담 쌓은 밭 초가집 엮은 정낭

‘燕尾蜂腰千萬形(22-1)’에서는 ‘燕尾蜂腰千萬形’으로 원문을 읽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결구된 『심재집』의 표기를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²⁴⁾ 이에 따라서 “연미봉 허리 뒤에 보이는 천만 가지 모양새들”로 해석하고 있는데, 동경대학본 『탐라지』에서의 ‘鳳’을 제외하면 나머지 다른 이본들에는 모두 ‘峰’이 아닌 ‘蜂’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해석이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문 글자에 맞추어 충실히 읽기 위해서는 ‘제비 꼬리 벌의 허리 천만 가지 형상인데’ 정도로 읽는 게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人知種植飽胸胸(26-1)’에서는 “사람들은 모두다 굴나무를 심어 생활이 풍족하여”의 번역에서 ‘곤히 잘 때 코를 고는 소리’의 뜻인 ‘胸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초목을 심어 가꿈’의 ‘種植’의 원 뜻을 살리면서 ‘사람들 농사지어 배불리 먹고 자니’ 정도로 해석하는 게

24) 1990년 제주문화사에서 간행한 김석익의 『심재집』은 2권으로 간행되었는데, 이 가운데 최부의 <탐라시>는 권2의 372~374면에 수록되었으나 17수 4구부터 33수 4구까지 결구되었다.(金錫翼, 『心齋集(II)』(影印), 濟州文化社, 1990, 372~374면.)

더 옳을 듯하다.

‘石田茅屋矮柴扉(28-2)’에서는 “돌담 쌓은 밭 초가집 엮은 정낭”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사립문’인 ‘柴扉’를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대문(大門) 대신 걸쳐 놓는 길고 굽직한 나무’인 ‘정낭’으로 잘못 읽고 있다. 이보다는 ‘자갈밭 초가집 사립문 낮고 작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듯하다.

3.3. 정확하지 않은 주석

번역문 속에서 주석을 수록하고 있는 오문복의 『탐라지』·『탐라지초본』·『증보탐라지』 번역, 김희동과 홍기표의 『남사록』 번역, 김익수의 『남사일록』 번역, 오창명의 『남환박물』 번역, 오문복의 『탐라시선』 번역 등에서 정확하지 않은 주석을 차례로 찾아보면 다음의 <표11>과 같다.

<표11> 정확하지 않은 주석

絶-句-字	문헌	단어	주 석
4-3-5,6	紅錦	탐라시선	紅錦 : 동백꽃을 가리킴. 紅錦과 橘柚 모두 제주의 특산이다.(오문복 역)
5-3-3,4	香雪	탐라지	한창 만발한 흰꽃을 구름에 비유한 말. 또는 구름
		탐라지초본	처럼 떠오르는 향연.(오문복 역)
11-3-3,4	款叩	증보탐라지	의고(疑叩). 문을 두드림. 조공(朝貢)과 책명(冊名) 관계를 맺을 때 제후가 천자에게 드리는 일정한 예를 뜻한다.(오문복 역)
		탐라시선	款叩는 문을 두드림. 굽신거림(朝貢을 뜻함)을 일정하게 정함.(오문복 역)
12-1-3,4	龍興	남사록	함경남도 용흥강? 待考.(김희동 역)
19-3-3,4	靑蛇	탐라지초본	청타(靑蛇)는 푸른 키.(오문복 역)
		증보탐라지	청사(靑蛇) : 시퍼런 칼날 빛을 형용한 말이다.(오문복 역)
		남환박물	청타(靑蛇) : 배의 푸른 키(오창명 역).
25-4-3,4	鵞鵝	탐라지초본	휴류(鵞鵝)는 새 이름으로, 부엉이를 이름. 『박물지(博物志)』에 “鵞鵝 晝日無所見 夜則至明” 이라고 함.(오문복 역)
		남환박물	휴류(鵞鵝) : 새 이름으로, 부엉이를 이름이다. 『박물지(博物志)』에 “?? 晝日無所見 夜則至明” 이라고 하였다.(오창명 역)

26-3-6,7	壽域	탐라지	생존 중에 만드는 무덤으로, 수혈(壽穴), 수장(壽藏), 수궁(壽宮)이라고도 한다.(오문복 역)
		탐라지초본	
31-1-6,7	荊楊府	남사록	荊楊府(형양부) : 제부의 府庫를 말하는 듯.(김희동 역)

<표11>에 나타난 정확하지 않은 주석들에 대해서는 앞서 잘못된 번역 사례에서 대체로 함께 설명하였거니와 여기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款叩(11-3-3,4), 鶴鵲(25-4-3,4), 壽域(26-3-6,7)’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款叩(11-3-3,4)’에서는 ‘款叩’를 일단 ‘疑叩’로 잘못 읽고 있다. 따라서 원문에 맞는 ‘성심을 다하여 가르침을 청함’의 ‘款叩’로 풀이함이 맞는 주석이다.

‘鶴鵲(25-4-3,4)’에서는 ‘부영이’ 뜻의 ‘鶴鵲’로 읽고 있으나 원문에는 ‘부영이와 까치’의 뜻인 ‘鶴鵲’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鶴鵲’가 아닌 ‘鶴鵲’으로 바르게 풀이해야 할 것이다.

‘壽域(26-3-6,7)’에서는 ‘壽域’을 ‘무덤’의 뜻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 보다는 문맥상 ‘사람마다 천수(天壽)를 누리는 태평한 성세(盛世)’의 뜻으로 풀이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최부의 <탐라시>의 번역양상을 틀린 한자와 오독 사례, 잘못된 번역 사례, 정확하지 않은 주석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틀린 한자와 오독 사례에서는 이원진의 『탐라지』를 번역한 김행욱·김상조·오문복, 이원조의 『탐라지초본』과 담수계의 『증보탐라지』를 번역한 오문복, 김상현의 『남사록』을 번역한 박용후·김희동·홍기표, 이증의 『남사일록』을 번역한 김익수, 이형상의 『남환박물』을 번역한 오창명, 『탐라지신』을 번역한 오문복 모두 여러 곳에서 틀린 한자와 오독 사례가 눈에

떡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紅綿-紅錦(4-3-5,6), 欸卍-欸(欸)卍(11-3-3,4), 瀛得-贏得(16-2-1,2)’ 등은 여러 번역자들이 틀리게 읽고 있었다.

잘못된 번역 사례에서는 ‘목면’인 ‘紅綿’을 “붉은 비단”으로, ‘허희 목사’의 ‘許使君(17-3-5,6,7)’을 “그대에게 허락하니”로, 지명인 ‘관두량’의 ‘館頭(18-1-1,2)’를 “진관 머리, 관머리”로, ‘푸른 뱀’의 ‘靑蛇(19-3-3,4)’를 “푸른 키”로, 지명인 ‘우도’의 ‘瑞山(21-1-3,4)’을 “상서로운 산”으로, ‘초평양(初平羊)’의 고사인 道士羊(23-3-5,6,7)’을 “도사가 해매고, 도사나 거닐겠고” 등으로, ‘사람마다 천수를 누리는 태평한 성세’의 ‘壽域(26-3-6,7)’을 ‘성역’ 등으로 오역하고 있었다. 특히 지명이나 인명 같은 고유명사를 풀어서 해석하거나 고사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정확하지 않는 주석에서도 ‘성심을 다하여 가르침을 청함’의 ‘欸卍(11-3-3,4)’를 “문을 두드림”의 ‘疑卍’로, ‘제왕이나 왕조가 흥기함의 비유’의 ‘龍興(12-2-3,4)’을 “함경남도 용흥강?”의 지명으로, ‘부엉이와 까치’의 ‘鵞鵲(25-4-3,4)’을 ‘부엉이’의 ‘鵞鵲’로, ‘사람마다 천수(天壽)를 누리는 태평한 성세(盛世)’의 ‘壽域’을 ‘무덤’ 등으로 틀리게 설명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金錫翼, 『心齋集(Ⅱ)』(影印), 濟州文化社, 1990.
- 金錫翼, 오문복 외 역, 『濟州 속의 耽羅 : 心齋集』,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1.
- 金尙憲, 『南槎錄』(奎章閣本; 濟州道, 『濟州史資料叢書(Ⅰ)』, 濟州道, 1998.)
- 金尙憲, 金禧東 譯, 『南槎錄』, 永嘉文化社, 1992.
- 金尙憲, 洪琦杓 譯註, 『南槎錄(上)』, 濟州文化院, 2008.
- 金尙憲, 洪琦杓 譯註, 『南槎錄(下)』, 濟州文化院, 2009.
- 淡水契, 吳文福 外 譯, 『譯註增補耽羅誌』, 濟州文化院, 2005.
- 吳文福 編譯, 『耽羅詩選』, 이화문화출판사, 2006.
- 李源祚, 『耽羅誌草本 外』(影印),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9.
- 李源祚, 고창석 외 역, 『耽羅誌草本(上)』, 濟州教育博物館, 2007.
- 李源祚, 고창석 외 역, 『耽羅誌草本(下)』, 濟州教育博物館, 2008.
- 이원진, 김찬홍 외 역,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 李元鎭, 金相助 譯, 『耽羅志』,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91.
- 李增, 金益洙 譯, 『南槎日錄』, 濟州文化院, 2001.
- 李衡祥, 『耽羅巡歷圖·南宮博物』(影印),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 이형상, 이상규·오창명 역주,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 제주도교육위원회,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 崔溥, 『錦南集』(민족문화추진회, 『韓國文集叢刊』16, 경인문화사, 1988.)
- 崔溥, 金永吉 譯, 『國譯 錦南集』, 湖南文化院, 2004.
- 최부, 윤치부 주해, 『주해 표해록』, 박이정, 1998.
- 최부, 김지홍 역, 『최부 표해록』, 지만지, 2009.
- 崔溥, 박원호 역, 『崔溥 漂海錄 譯註』, 고려대출판부, 2006.
- 최부, 김찬순 역, 『기행문집(1)』(조선고전전문학선집29),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4.
- 최부, 허문섭 역, 『표해기』, 해누리, 1994.
- 최부, 『표해록』(민족문화추진회, 李載浩 역, 『국역 연행록 선집』, 민족문화추진회, 1976.)
- 최부, 최기홍 역, 『漂海錄』, 삼화인쇄주식회사, 1979.

- 최부, 최기홍 역, 『금남선생 표해록』, 교양사, 1989.
- 최부, 최기홍 역, 『최부 표해록』, 교양사, 1997.
- 최부, 서인범·주성지 역주, 『표해록』, 한길사, 2004.
- 崔溥, 清田君錦 譯, 『唐土行程記』, 皇都書林, 1769.
- 崔溥, 清田君錦 譯, 『通俗漂海錄』, 東都書林(浪華書林·皇都書林), 1795.
- 崔溥, 葛振家 譯, 『漂海錄：中國紀行』,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2.
- 耽津崔氏宗親會, 『錦南崔先生文集』(耽津崔氏宗親會, 『耽津崔氏族譜 文獻錄』, 耽津崔氏宗親會, 1954.)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臥遊錄』(韓國學資料叢書1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 John Meskil, Ch'oe Pu's Diary :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Tucson :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65.

2. 논문 및 단행본

- 葛振家, 『崔溥 漂海錄 研究』,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5.
- 박원호, 『崔溥 漂海錄 研究』, 고려대출판부, 2006.
- 裴賢淑, 「柳希春이 版刻을 主導한 書籍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3.
- 부영근,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고찰」, 『耽羅文化』 29,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6.
- 소재영·김태준 편, 『여행과 체험의 문학』,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7.
- 王劭銘, 「김상헌의 <남사록>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윤치부, 「김중직 <탁라가>의 존재양상과 작품세계」, 『초등교육연구』 14/1, 제주대 초등교육연구소, 2009.
- 윤치부, 「최부 <탐라시>의 이본 고찰」, 『새국어교육』 86,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 尹致富, 『韓國海洋文學研究』, 學文社, 1994.
- 李祥順, 「淸陰 金尙憲의 <南槎錄> 研究」, 忠南大 大學院 碩士論文, 2005.
- 이종범, 『사람열전1 :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2006.
- 林俊成, 「錦南 崔溥의 <耽羅詩 三十五絶> 考察」, 한중문화교류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문, 2010.
- 任弘宣, 「金尙憲의 <南槎錄>」, 『論文集』 23, 제주교대, 1994.

崔康賢, 『韓國紀行文學研究』, 一志社, 1982.

張德順, 『韓國隨筆文學史』, 새문社, 1985.

정병욱, 『한국고전의 재인식』, 弘盛社, 1979.

조규익·최영호 엮음,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K C I

국문초록

최부 <탐라시>의 번역양상 고찰

윤치부

이 글은 『금남표해록』으로 학계에 널리 알려진 최부가 1487년(성종 18) 11월 제주추쇄경차관으로 제주에 입도했다가 이듬해 윤정월 제주를 출발하기 전까지의 50여 일 남짓 제주에 머물면서 제주의 풍토와 물산 등을 노래하고 있는 35절의 기속시인 <탐라시>의 번역양상에 대한 고찰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최부의 <탐라시>가 수록된 문헌으로는 이원진의 『탐라지』,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작자 미상의 『탐라지』(일본동경대학본), 담수계의 『증보탐라지』, 김상현의 『남사록』(규장각본·청음유집본), 이증의 『남사일록』, 김석익의 『심재집』, 『탐진최씨족보 문헌록』, 오문복의 『탐라시선』 등 10종이다. 이 가운데 우리말로 번역된 문헌으로는 이원진의 『탐라지』(김행옥·김상조·오문복 역),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오문복 역), 담수계의 『증보탐라지』(오문복 역), 김상현의 『남사록』(박용후·김희동·홍기표 역), 이증의 『남사일록』(김익수 역), 이형상의 『남환박물』(오창명 역), 오문복의 『탐라시선』(오문복 역) 등 모두 여덟 편으로 <탐라시> 번역문 전문에서 틀린 한자와 오독 사례, 잘못된 번역 사례, 정확하지 않은 주석 사례 등을 대교하여 번역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최부의 <탐라시>는 이들 이본에 따라 글자 간 조금씩 변이가 이루어지거나 오자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간과하고 있었다. 아울러 원문을 정확하게 읽지 않거나 지명이나 인명 같은 고유명사를 풀어서 해석하거나 고사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번역 사례들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탐라시, 번역양상, 최부, 탐라지, 남사록, 남사일록

Abstract

Contemplation on the Translation Aspect of Choi Bu *Tamla Poem*

Yoon, Chi-boo

This essay is focused on the contemplation regarding the translation aspect of *Tamla Poem*, which is the 35-passage poem summarized as Choi Bu, well known in the literary world through *Geunnam Pyohaerok*(China Travelogue), coming to Jeju in November 1487 (Sungjong 18) as a governmental official and sings about the natural characteristics, mountains, and rivers of Jeju during the 50 days before setting sail. There are 10 literary works that have been revealed to contain Choi Bu's *Tamla Poem*, which are Lee Won-jin's *Tamlaji*, Lee Won-jo's *Tamlaji Abstract*, *Tamlaji* of unknown authorship (Japan Tokyo University copy), Dam Su-gye's *Revised Tamlaji*, Kim Sang-heon's *Namsarok* (Joseon Royal Library, Chungseum collection), Lee Jeung's *Namsailrok*, Kim Seok-ik's *Shimjaejib*, *Tanjin Choi Geneology Literature*, and Oh Mun-bok's *Tamlasisun*. Among these literary works, literature that has been translated into Korean are 8 pieces, including Lee Won-jin's *Tamlaji* (Kim Hang-ok, Kim Sang-jo, Oh Moon-bok), Lee Won-jo's *Tamlaji Abstract* (Oh Moon-bok), Dam Su-gye's *Revised Tamlaji* (Oh Moon-bok), Kim Sang-heon's *Namsarok* (Park Yong-hoo, Kim Hee-dong, Hong Gi-pyo), Lee Jeung's *Namsailrok* (Kim Ik-soo), Lee Hyeong-sang's *Namhwanbakmul* (Oh Chang-myeong), and Oh Mun-bok's *Tamlasisun* (Oh Moon-bok), and translation aspect has been studied by comparing false Chinese characters, misreading, false translation, and inaccurate

annotates in the entire translation of *Tamla Poem*. As a result, not only are letters being slightly modified, but such facts are being overlooked in the translation process despite misprinting. Furthermore, inaccurate reading of the original writing, improper interpretations of proper nouns such as place or name, and inaccurate translations of traditional incidents have been verified in several places.

Key words : *Tamla Poem* Translation aspect, Choi Bu, *Tamlaji*, *Namsarok*, *Namsailrok*

논문 받은 날 : 2011년 4월 20일
심사 기간 : 2011년 5월 1일~15일
심기로 한 날 : 2011년 5월 22일